



오전 11시
교회소식
성찬식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신앙고백 /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228)

특송 / "십자가의 전달자"

결단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내 모습 이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 안에서 내 영혼

찬 양*

회중기도

봉 헌*

말씀교독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7:1-8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508)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인도자

다같이

김은희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김원재목사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9/6)은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건축위원회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건축위원들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들을 위한 (비대면) 여름성경학교와 Youth Group Retreat을 잘 마쳤습니다.
5. 9/9(수)부터 6주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을 받을 장로,집사,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영상과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11,062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복된 인생을 위하여

10여년 전,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노보시비르스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묘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무덤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초라한 무덤들도 있었습니다. 온갖 꽃들로 장식된 무덤이 있는가 하면, 주변 풀들이 모두 말라버린 무덤도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러시아인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고인을 참으로 위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죽은 후 무덤을 잘 장식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그를 잘 대하는 것이, 진정 그를 위하는 길입니다. 또한 화려한 무덤이든 초라한 무덤이든 그 안에 묻힌 육체는 동일하게 썩을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적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또한 타인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살펴할 일들을 나중에 미루어 살아갑니다. 죽으면 썩어질 뿐인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과 믿는 자들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난 후 그제야 후회할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사랑과 나눔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할 말 있는 인생,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